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 1번문항 >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두 작품 (가)와 (나)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파악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새벽 버스 차창에 핀 '성애꽃'을 관찰하며, 그것이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 입김과 숨결이 /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인식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라고 생각하며 성애꽃을 통해 타인의 삶의 흔적과 그 안에 담긴 애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아가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자는 성애꽃이라는 대상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삶과 자신의 내면, 그리고 과거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에서 화자는 떨어진 '단추'를 보며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끼고, "떨어져 빈자리가 생긴 뒤에야 / 단추의 의미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단추가 "나와 세상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였음을" 깨닫고, 단추를 다시 다는 행위를 통해 "나와 너,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일", "느슨해진 관계들에 대한 나의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화자는 단추라는 일상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관계의 소중함과 희망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화자가 특정 대상을 통해 내면적 성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찬란한'과 같은 표현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나, 작품 전체에서 '선명한 색채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제를 강조하는 핵심적인 표현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역시 색채어의 사용이나 대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나)에서 화자는 "-고 싶다", "-으면 좋겠다"와 같이 소망을 드러내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형 어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 극복 의지를 명령형 어미를 통해 드러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에도 명령형 어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가)는 성애꽃이라는 순간적인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개인적인 상념을 다루고 있고, (나)는 떨어진 단추를 달면서 관계와 희망을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황폐화'를 중심 내용으로 그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⑤: (가)는 "달린다", "피는", "보고", "취한다", "본다" 등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떨어져 나갔다", "몰랐다" 등의 과거 시제와 "느껴질 때", "알겠다", "단다", "깨닫게 한다", "좋겠다" 등 현재 시제 및 미래 또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 (나)가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문항]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가)와 (나)에 사용된 특정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시적 기능을 한층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시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④ (가)에서 '성애꽃 한 잎 지우고'는 대상과의 교감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조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나)에서 '작은 방심과 소홀함'은 상실의 근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여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가)의 '성애꽃 한 잎 지우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가)에서 화자는 성애꽃의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표현하며,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 성애꽃 한 잎 지우고 / 이마를 대고 본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성애꽃의 차가움을 직접 느끼고 대상과 더 깊이 교감하려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상과의 교감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조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오히려 대상에 몰입하고 일체감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와 상반됩니다. 객관적 거리 두기보다는 주관적 감흥의 심화로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방심과 소홀함'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떨어진 단추는 지난 시간의 / 작은 방심과 소홀함을 깨닫게 한다"는 구절은, 화자가 그 '작은' 일로 인해 '단추의 의미'와 '연결고리로서의 중요성'이라는 큰 깨달음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소해 보였던 원인이 실은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곱씹는 것이지, '상실의 근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여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과는 정반대입니다. 화자는 오히려 그 작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상실의 의미를 확대하여 성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가)와 (나)의 시어 모두에 대해, 표면적인 단어나 행위에 기반하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시적 맥락과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미묘하게 왜곡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이는 피상적 이해를 넘어선 심층적 감상을 변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선연히'는 '엄동 혹한'이라는 혹독한 배경과 대조를 이루며, 성에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그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②: (나)의 '정성스레'는 화자가 단추를 다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그 행위를 통해 "나와 너,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일"로 여기고 "느슨해진 관계들에 대한 나의 희망"을 투영하는 등, 내면적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 회복에 대한 소중한 의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③: (가)의 '막막한 한숨'은 성에꽃을 이루는 타인들의 삶의 고단함을, '푸석한 얼굴'은 그러한 타인의 모습 또는 그에 공감하며 친구를 떠올리는 화자 자신의 쓸쓸한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나)의 '마음이 허전하다'와 '빈자리'는 단추라는 구체적 대상의 부재가 화자에게 직접적인 정서적 결핍감, 즉 공허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⑤: (가)의 '친구여'라는 돈호는 현재 함께하지 못하는 대상인 '친구'를 직접 부름으로써,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환기하며 시 전체에 애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나)의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단정적이지 않은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여, 관계 회복이라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여지를 남긴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3번문항]

정답: ⑤

해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비평적 관점을 바탕으로 두 작품 (가)와 (나)를 적절하게 감상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보기>는 화자가 일상의 사소한 대상이나 사건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관계를 성찰하며 긍정적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두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⑤ (가)에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와 (나)에서 '단추를 단다'는 행위는, 모두 화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발견한 가치를 통해 내면의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는군.

(가)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 <보기>의 관점 및 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에서 화자가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행위는 성에꽃이라는 찰나적 현상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타인의 삶의 온기를 더 깊이 느끼고 교감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새로운 의미나 가치

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내면의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상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자는 성에꽃을 통해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지만, 성에꽃을 지우는 행위가 그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능동적 의지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대상과의 교감을 통한 사색과 정서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보기>는 '긍정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태도'를 언급하지만, (가)의 해당 행위는 상실감의 '극복 의지'보다는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감, 그리고 그로 인한 정서적 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해석은 일부 타당할 수 있으나, (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인해 선지 전체가 적절하지 않게 된다: (나)에서 '단추를 단다'는 행위는 '느슨해진 관계들에 대한 나의 희망'을 담고 있으며, '마음이 허전하다'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의 '관계의 회복이나 삶의 긍정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선지는 (가)와 (나)의 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의미(상실감 극복 의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에 대한 해석이 <보기>의 관점을 정밀하게 적용하지 못했거나 시의 맥락을 벗어났으므로, 전체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의 행위를 '상실감 극복 의지'로 단정하는 것은 <보기>의 '성찰' 및 '긍정적 가치 지향'이라는 포괄적 설명 범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익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남긴 '입김과 숨결'이 '성에꽃'이라는 찰나적이지만 아름다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일상의 평범하거나 사소해 보이는 대상'(사람들의 숨결)이 '찰나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성에꽃)을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로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②: (가)에서 화자가 '성에꽃'이라는 찰나적 현상을 통해 '지금 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와의 '단절된 관계를 성찰'하고, 그 기억이나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자기 자신이나 세계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긍정적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그 관계의 가치를 긍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나)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보기>의 '생활 속 작은 사물의 결함'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화자가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사소한 사건이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고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④: (나)에서 화자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단추를 단다'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작은 사물의 결함'을 보완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느슨해진 관계들에 대한 나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화자의 능동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4번문항]

해설:

이 문제는 세 작품 (가), (나), (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상 또는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 및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가) 이신의, <사우가> **는 "동산에 달 오르니"(저녁), "검기를 자주 한다"(시간의 변화), "피면서 쉬이 지고"(계절의 변화), "사시(四時)에 푸르니"(사계절) 등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벗들(수석, 송죽, 달)의 모습을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합니다.

(나) 조위인, <출새곡> 발췌 부분은 "백일(白日)이 어두우니"(낮이 어두워지니), "어느 각(刻)에 잊을는고"(어느 순간), "어느 날 돌아갈꼬"(미래의 어느 시점), "매일(每日) 밤" 등 시간의 경과와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사행길의 여정과 그에 따른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며 서사를 진행합니다.

(다) 피천득, <인연> 발췌 부분은 "스무 살이 되기 전이었다", "십 년이 지난 후", "시간은 그렇게 흘러 있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짧았던 세 번의 만남",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시간과 기억의 직물" 등 시간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중심으로 인연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이라는 서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대체로 관조적이고 예찬적인 어조, (나)는 충심과 우수를 담은 담담하면서도 비장한 어조, (다)는 회고적이며 성찰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어, 세 작품 모두에서 '어조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가)는 변치 않는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하며 인간이 본받아야 할 덕목을 제시하지만, 이를 '인간 사회의 문제점과 대비하여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와 (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닌다고 보기 힘듭니다. (나)는 사행길의 어려움과 충심을, (다)는 인간관계와 시간에 대한 성찰을 주로 다룹니다.

③: (가)의 <제4수>에서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와 같이 대상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돈호와 설의)이 나타나지만, 스스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문답 구조가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다)의 발췌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답 방식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④: (가)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지만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이상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화자가 교감하는 현실적 자연입니다. (나)는 실제 사행길이라는 구체적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는 동경, 집, 신문 등 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현실과 단절된 이상적 공간'을 주된 배경으로 설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문항]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가) 이신의 <사우가> 각 수의 시상 전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① <제1수>의 초장은 문답 형식을 통해 시적 대상을 한정하고, 종장은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다.

<제1수> 초장 분석: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는 화자가 스스로 질문하고("몇이나 하니") 스스로 답하는("수석과 송죽이라") 문답 형식을 통해 자신이 벗으로 삼는 시적 대상(물, 돌, 소나무, 대나무)을 명확히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수> 종장 분석: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 하리"는 '이 다섯(수석, 송죽, 달) 외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더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다섯 벗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족적인 정서가 집약적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제1수>의 시상 전개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해설:

②: <제2수>의 초장("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과 중장("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은 구름과 바람의 변화하는 속성(검어짐, 그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변하는 속성'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종장에서는 이러한 가변적 대상들과 달리 변함없는 '물'을 예찬합니다.

③: <제3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가변적인 자연물인 꽃과 풀을 언급하며 이와 대비되는 바위의 불변성을 종장에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유한함을 암시'하거나,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시의 초점은 바위의 불변성에 대한 예찬입니다.

④: <제4수>의 초장은 자연물의 일반적인 변화 양상("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을 제시하고, 종장은 소나무의 불변성("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에 대한 감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종장("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은 소나무가 변치 않는 이유를 그 '깊고 곧은 뿌리'(내재적 강인함)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자연과의 조화'에서 찾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⑤: <제5수>의 초장은 대나무의 독특한 외양("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을, 종장은 그 곧고 속이 빈 특성에 대한 감탄을 질문 형식으로 드러냅니다. 종장은 이러한 대나무를 사계절 푸르기에 좋아한다고 말하며 예찬하고 있지만, 화자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6번문항]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작품 해설을 바탕으로 (나) <출새곡>의 특정 구절(㉠~㉢)에 담긴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적절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보기>는 <출새곡>의 화자가 낯설고 척박한 환경에서 고난과 외로움을 겪지만, 고국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③ ㉢을 통해, 매서운 바람과 초라한 행색은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화자의 나약한 심정을 보여주는군.

㉢ "삭풍(朔風)은 더욱 차고 행색(行色)은 초췌(憔悴)하다"는 북방의 매서운 바람과 그로 인해 지치고 초라해진 화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겪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화자가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한다'거나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나약한 심정'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화자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위국충심'과 '일편단심'을 다짐하는 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구절을 통해 나약함이나 회피 심리를 읽어내는 것은 <보기>의 설명 및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①: ㉠ "장부(丈夫)의 위국충심(爲國衷心) 어느 각(刻)에 잊을는고"는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변함없는 충정'과 연결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심을 지키려는 굳건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②: ㉡ "두만강(豆滿江) 건넌 물이 어름조차 얼었구나"는 두만강의 물까지 얼어붙은 혹독한 북방의 겨울 날씨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화자가 처한 '척박한 환경'과 '여정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합니다.

④: ㉣ "궁려(穹廬) 삼백 리(三百里)에 어느 날 돌아갈꼬"는 목적지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았으며 돌아갈 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고국과 임금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⑤: ㉤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변(變)할 줄이 있으랴"는 한 조각 붉은 마음, 즉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어떠한 시련에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설의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는 <보기>의 '변함없는 충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화자의 강한 의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7번문항]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가)와 (나)에 사용된 특정 시어들을 비교하며, 각 시어의 문맥적 의미, 기능,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② (가)의 '무엇하리'는 다섯 벼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나)의 '어느 날'은 기약 없는 귀환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함축한다.

(가)의 '무엇하리' 분석: <제1수> 종장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는 화자가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 다섯 자연물을 벗으로 삼는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없다는 자족적인 태도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어느 날' 분석: (나)에서 "궁려(穹廬) 삼백 리(三百里)에 어느 날 돌아갈꼬"라는 구절은 사행길의 험난함과 목적지까지의 먼 거리 속에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화자의 막막함, 그리고 고국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각 시어에 담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동산'은 화자가 달을 벗으로 맞이하는 긍정적 공간이지만,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이나 '이상적 공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광야'는 아득하고 척박한 공간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현실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나 '절망'만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화자가 여전히 '일편단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약입니다.

③: (가)의 '술'이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강직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홍안령'은 화자가 넘어야 할 험준한 고개로 외부적 시련을 의미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자는 오히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충심을 다잡고 있습니다.

④: (가)의 '모르느냐'(<제4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는 소나무가 눈서리를 모르는 듯 늘 푸른 모습에 대한 감탄과 예찬을 담은 설의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에 대한 '의구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의 '잊을는고'(<제1수> "장부(丈夫)의 위국충심(爲國衷心) 어느 각(刻)에 잊을는고") 역시 잊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기억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가)의 '좋아하노라'(<제5수> 대나무에 대해)는 대상의 변치 않는 덕성(곧음, 비움, 사계절 푸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정을 나타내므로 '순간적인 미적 감흥'으로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바라보니'("매일(每日) 밤 시름없이 임금 계신 곳 바라보니")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지, '연민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8번문항]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는 (다) 피천득의 <인연>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건인 '화자와 아사코의 세 번의 만남'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③ 세 번의 만남은 모두 화자가 미리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인연의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강조한다.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만남 중 동경 교외 길에서의 조우는 우연했지만, "얼마 후 M의 집에서 아사코를 다시 만났다"고 한 부분은 M이라는 친구를 통한 만남이므로 완전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우연히 동경 시내에서 아사코를 다시 만났다"고 하여 우연성을 띠지만, 이후 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의도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세 번째 만남의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만남이 전적으로 '미리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만남 중 M의 집에서의 만남은 친구를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만남이지, 예기치 않은 우연으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이 우연적이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텍스트의 세부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만남에서 화자는 아사코를 "열여섯 살쯤 된 "참 예쁜 소녀"로 기억하며 "하얀 모시 원피스"를 입은 모습과 "청아한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이는 이후 두 번째 만남에서 "소녀 시절의 옛된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여인의 품위가 느껴졌다"는 부분과 대비되며, 첫 만남이 지닌 '순수함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②: 두 번째 만남은 "십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아사코는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있고 "성숙한 여인의 품위"를 지니는 등 외적 변화를 겪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 문학,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첫 만남보다 더 깊어진 내면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④: (다)는 화자가 아사코와의 세 번의 만남(외적 사건)을 회상하고, 각 만남의 의미와 더불어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시간과 기억의 직물이 아닐까"와 같이 인연과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내적 성찰)을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⑤: 아사코의 부음 소식을 들은 후 화자는 "가슴이 메이는 듯했다"며 상실감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은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있다", "아사코는 내게 그런 시간의 한 조각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하여, 부재로 인해 그 만남들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합니다.

[9번문항]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작가 및 작품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 (나), (다) 세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고, 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보기>는 작가의 실제 경험이나 창작 의도가 작품 속 화자나 서술자, 혹은 특정 대상에 투영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각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상적) 창작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가)에서 '달'을 '더욱 반갑고야'라고 표현한 것이나 (나)에서 '임금 계신 곳'을 '매일 밤 시름없이 바라보니'라고 한 것은, 모두 작가가 당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가)에서 '달'은 수석, 송죽과 더불어 화자가 벗으로 삼는 자연물 중 하나로,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친밀함의 대상입니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작가가 '변치 않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지은 작품으로, 달은 이러한 가치를 상징하는 자연물이지 '당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자는 달을 반가운 벗으로 여기며 교감할 뿐, 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서 화자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는 행위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을 나타냅니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작가가 '국가적 사명'을 띠고 '복합적인 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충성의 대상이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기>의 정보 및 작품의 맥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충심을 다할 뿐, 임금을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문제 해결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두 작품 모두 해당 대상을 신격화하거나 문제 해결의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설정하여 간절한 믿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된 각 작품의 창작 배경과 작품 내 표현의 본질적 의미를 벗어난 과도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수석, 송죽, 달과 같은 변치 않는 자연물을 벗으로 삼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작가가 '혼란한 세속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변치 않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배경과 부합하며, 작가의 태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상)

②: (나)에서 화자가 사행길에 오르며 고국을 돌아보고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다짐하는 모습은, <보기>에서 제시한 작가가 '국가적 사명'을 띠고 '복합적인 심정'(책임감, 애정, 고뇌 등)을 느꼈다는 배경과 연결되어, 작가의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상)

③: (다)에서 화자가 아사코와의 과거 만남들을 '시간의 한 조각', '소중한 추억'으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작가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과거의 인연을 회상하며 삶의 단상들을 성찰적으로 기록'했다는 배경과 일치하며, 작가의 회고적 시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감상)

⑤: <보기>의 첫 문단은 "작품에서 화자나 서술자는 작가 자신인 경우가 많아, 작가의 생애나 창작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 (나), (다)의 화자/서술자는 <보기>에서 제시된 각 작가의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작가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각 작품이 작가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은 <보기>의 관점에 부합하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10번문항]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소설 발췌문의 전반적인 내용, 중심인물의 성격, 서술 방식 및 주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① 한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와 그가 지닌 가치관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윗글의 중심인물인 윤 직원 영감은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는 종학이 "만석꾼의 집 손자놈"으로서 "부자놈이 천하에 제일 편한 것"을 모르고 "세상 망하라고 사회주의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이 태평천하에! 이 좋은 세상에"라고 인식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놈의 세상, 어서 망해 버리든지 해야지! 그래야 우리 집안이라두 안전할 게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파멸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집안은 안전하기를 바라는 극도의 이기심과 위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윤 직원 영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은 서술자의 개입이나 상황 묘사를 통해 풍자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윗글의 핵심적인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오답 해설:

②: 윤 직원 영감은 가부장적 권위를 강하게 내세우며 아들 종수와 (언급 속) 손자 종학을 호되게 질책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의 분노는 권위가 '약화'되었음을 느끼는 무력감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기대와 가치관에서 벗어난 손자의 행동에 대한 배신감과 불안감,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입니다. 그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손자 종학이 '새로운 시대정신'(사회주의)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종학이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이념을 주장하거나 기성세대인 윤 직원 영감과 '침예한 이념적 갈등'을 벌이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 직원 영감의 일방적인 분노와 질책, 그리고 종수의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윤 직원 영감은 재산 문제에 민감하지만, 이 글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격렬한 대립'을 벌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종학의 사상 문제이지, 가족 간의 직접적인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안의 위기를 암시'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과 양상에 대한 설명이 본문과 다릅니다.

⑤: 윤 직원 영감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만석꾼'으로 매우 부유하며, '경제적 몰락'의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전통적 가족 관계의 해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윤 직원 영감은 전통적 가치관과 재산을 고수하려 하며, 신세대의 사상적 변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11번문항]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대화 부분 ㉠, ㉡, ㉢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 심리, 태도,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④ ㉠와 ㉢에서 윤 직원 영감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종학의 행동과 종수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극심한 불쾌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에서 윤 직원 영감은 "그놈이 만석꾼의 집 손자놈이, 세상 망하라고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에 부족해서 불한당 같은 그런 불측한 사상을 품고 다녀? 응!"라고 말하며 종학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종학의 사상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지, 실제 생각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서 윤 직원 영감은 종수에게 "너는 애비로서 뭘 했어? 자식새끼 하나를 그렇게 가르쳤어? 당장 종학이놈을 불러오지 못할까!"라고 소리치며 책임을 추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분노와 질책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㉔와 ㉕에서 윤 직원 영감이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①: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은 "만석꾼의 집 손자놈", "부자놈의 자식"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계층적 인식을 드러내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종학을 "세상 망하라고 하는" 행위, "불한당 같은 불측한 사상"으로 규정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②: ㉕에서 종수는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있을 테니까…… 또 그리고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하고 종학을 조심스럽게 변호하려 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아버지의 권위에 위축되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다 전달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③: ㉕에서 윤 직원 영감은 종학에 대한 분노의 화살을 아들인 종수에게 돌려 "너는 애비로서 뭘 했어?"라며 책임을 추궁하고, "당장 종학이놈을 불러오지 못할까!"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며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학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종수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⑤: ㉔에서 윤 직원 영감의 격앙된 어조는 ㉕에서 종수가 "너무 염려 마십시오"라며 조심스럽게 해명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뭐야? 자기 생각? 허어, 그놈 똑똑한 줄은 알았더니, 필경 망령이 들었구나!"라며 더욱 분노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㉕에서는 그 분노가 종수에게 직접적인 질책으로 향하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설명)

[12번문항]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는 윗글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윤 직원 영감'과 그의 아들 '종수'의 성격, 가치관, 심리 상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각 선지는 인물의 행동이나 말의 이면에 있는 복합적인 동기나 미묘한 심리까지 추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③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의 사상 자체보다 그로 인해 가문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더 근본적으로 염려하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지만, 그의 분노의 기저에는 사상 자체에 대한 이념적 반감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재산("만석꾼의 집 손자놈", "조상이 물려준 재산")과 집안의 안녕("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도록 단단

히 단속해야지. 종학이 그놈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위태로 워져서는 안 되지.")에 미칠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주의를 "세상 망하라고 하는" 불측한 사상으로 여기는 것도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에 대한 공포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사상 자체에 대한 순수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기득권과 가문의 안위를 더 근본적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해설:

①: 윤 직원 영감이 자신의 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부자놈이 천하에 제일 편한 것인데"), 그가 인식하는 '현재의 사회 질서'("이 태평천하에!")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반어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가 '확고한 자부심'을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평가는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매력적 오답: '태평천하' 발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자부심으로 착각할 수 있음)

②: 종수는 아버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애쓰지만("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들 종학의 사상이 '위험하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버지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학이두 인제는 다아 커서 자기 생각이 있을 테니까…… 또 그리고 지금 세상이……."라며 조심스럽게 종학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듯한 여지를 남깁니다. (합정 요소: 중재 시도 O, 위험성 인정 및 적극 동조 X)

④: 윤 직원 영감이 종학의 행동을 '집안의 수치'로 여길 가능성은 있지만, 그가 "진심으로 손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복합적인 심정"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분노는 주로 가문의 명예와 재산에 대한 위협에서 비롯되며, 종학에 대한 처벌("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내쫓든지 해야지!")을 언급하는 등 애정 어린 걱정보다는 가부장적 통제와 처벌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매력적 오답: '복합적 심정'이라는 표현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텍스트와 불일치)

⑤: 종수는 아버지 앞에서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내면 심리를 묘사한 ㉔("내가 뭘 어쩐다구…… 종학이 그놈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남달라서 내가 뭐라구 해두 들을 놈이 아닌데…… 설사 불러온들 그놈이 내 말을 듣거나 할까…….")을 보면, 종학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거나 아버지의 가치관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기보다는, 아들의 고집과 아버지의 권위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과 체념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합정 요소: 내면 묘사 O, 그 내용에 대한 해석 왜곡)

[13번문항]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태평천하」의 특정 구절(㉠~㉢)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보기>는 서술자의 개입, 거리 유지, 풍자적 태도, 인물의 생각/말화 직접 제시, 문장 부호 활용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④ ㉡에서 종수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말줄임표(……)를 반복 사용한 것은, 아들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사이에서 고뇌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결론짓지 못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나타내는군.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은 종수의 내적 독백("내가 뭘 어쩐다구…… 종학이 그놈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남달라서 내가 뭐라구 해두 들을 놈이 아닌데…… 설사 불러온들 그놈이 내 말을 듣기나 할까…….")입니다. 여기서 말줄임표는 종수의 망설임, 체념, 그리고 내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들 종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아버지의 불호령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종수의 심리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서 비롯된 고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스트에서 종수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응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그의 내적 독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체념과 어찌할 수 없는 난처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적극적인 반항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함정 요소: 말줄임표가 복잡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그 심리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반항심'이라는 요소가 텍스트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답 해설:

①: ㉠("사회주의라니! 아,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오냐, 그놈을 내가 당장 잡아다가…… 그놈의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내쫓든지 해야지!")은 윤 직원 영감의 격앙된 감정이 담긴 발화를 직접 제시한 것입니다. <보기>의 "인물의 발화나 생각을 직접 제시하여 생동감을 주기도 하며"라는 설명과 연결 지을 때, 이를 통해 인물의 흥분된 감정과 완고한 성격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독자가 상황의 긴장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②: ㉢("지금 세상이 어떻다구? 이 태평천하에! 응? 이 좋은 세상에 그놈이 불만은 대체 뭐란 말이나, 불만은!")에서 윤 직원 영감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 '좋은 세상'이라고 반복하며 의문을 제기하는(실상은 자신의 생각을 강변하는) 모습은 명백히 방어적 상황입니다. 서술자는 이러한 발화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이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의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비판적,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내용과 부합합니다. (적절한 설명)

③: ㉢("종수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황

송한 듯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에서 '황송한 듯'이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극도로 어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종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묘사는 종수의 무력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부각하며, <보기>에서 언급한 서술자가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비판적,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위축된 종수의 모습을 통해 그의 성격을 풍자적으로 제시하며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⑤: ㉠("에이, 더럽다, 더러워! 이놈의 세상, 어서 망해 버리든지 해야지! …… 그래야 우리 집안이라두 안전할 게 아닌가!")이라는 윤 직원 영감의 모순된 발언과, 바로 뒤이어 제시되는 서술자의 설명("한편으로는 '그래두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해야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었습니다.")을 나란히 제시(병치)한 것은, 윤 직원 영감의 이기심과 위선, 이중적인 면모를 극명하게 폭로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려는 서술자의 의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으며, <보기>의 "서술자는 때때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논평하거나 ... 비판적,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와 연결됩니다. (적절한 설명)

[14번문항]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제시된 <숙향전> 발췌문의 전반적인 서술 방식, 사건 전개, 그리고 주요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② 주인공이 겪는 시련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는 우연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윗글에서 주인공 숙향은 부모와 헤어짐, 도적에게 약탈당함, 여옥의 모함과 학대, 강물에 던져짐 등 여러 시련을 겪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숙향은 오색 학과 마고 선녀의 도움, 사슴의 도움(본 발췌문에서는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숙향전의 내용 및 이 발췌문에서는 생략된 부분에서 유추 가능, 여기서는 마고 선녀가 준 구슬, 토지신의 꿈, 용녀의 구출 등을 통해 설명 가능), 토지신의 현몽, 용녀의 구출 등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나 예기치 않은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숙향 스스로의 힘이나 현실적인 대책보다는 다소 우연적이거나 전기적(傳奇的) 요소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고전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해설:

①: 윗글에서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략적인 심리 상태(예: 숙향의 슬픔, 여옥의 시기심)는 드러나지만, 각 인물의 내면 심리가 '치밀하게' 묘사되어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보기는 어

럽습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상 사건 중심의 서술이 주를 이룹니다.

③: 윗글은 숙향이 겪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별의 날", "그날 밤", "다음날 아침", "하루는", "며칠 후", "이듬해 봄" 등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지만,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서술하는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 방식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윗글에는 '깊은 산중', '청학동', '황하 강가', '용궁' 등 다양한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용궁과 같은 공간은 비현실적, 전기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⑤: 숙향은 선량하고 인내심 있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윗글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주로 외부의 도움이나 초월적 존재의 개입에 의존합니다. 숙향이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운명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 면모'를 주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은 있으나, 위기 해결의 직접적인 행동은 부족합니다.

[15번문항]

정답: ③

해설:

이 문제는 <숙향전> 발췌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 행동, 동기, 그리고 관계를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선지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미묘한 해석이나 여러 정보를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장 승상'은 처음에는 '숙향'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판단력을 보이지만, 결국 딸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 '숙향'을 강물에 던지라고 직접 명령하는 냉혹함을 드러낸다.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윗글에서 장 승상은 숙향의 용모와 정숙함을 보고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어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후 딸 여옥이 숙향을 모함하자("여옥이 자신의 값비싼 패물을 일부러 숨겨두고는 숙향이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다"), 장 승상은 "여옥의 말만 믿고 크게 노하여 숙향을 관아로 보내려 하였으나, 부인 양 씨가 간곡히 말려 겨우 매질만 당하고 헛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 승상이 여옥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은 맞지만, 숙향을 '강물에 던지라고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숙향을 강물에 던져 죽이려 한 것은 "장 승상이 황제의 명으로 변방에 사신으로 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었"을 때, "이를 기회로 여옥은 숙향을 더욱 모질게 학대하며, 급기야는 숙향을 깊은 강물에 던져 죽이려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숙향을 강물

에 던지는 극단적인 행위는 장 승상의 부재중에 여옥이 주도한 일이지, 장 승상이 직접 명령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장 승상의 행동에 대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①: 숙향은 부모와 헤어지고 도적을 만나며 여옥에게 학대받는 등 여러 시련을 겪지만, 마고 선녀의 예언("네 운명에는 삼재팔난(三災八難)이 끼어 있으니,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야 행복을 얻으리라. 이는 하늘의 뜻이니 부디 지혜와 인내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실제로 오색 학, 마고 선녀, 사슴(본 발췌문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으나 꿈속 토지신의 도움과 용녀의 도움 등으로 대표되는 초월적 도움), 토지신, 용녀 등의 도움으로 위기를 반복해서 벗어납니다. (적절한 설명)

②: 여옥은 "숙향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자수 솜씨를 질투하여 밤낮으로 구박하고 모함하였"으며, "자신의 값비싼 패물을 일부러 숨겨두고는 숙향이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아버지를 속이고 숙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는 개인적인 시기심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악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④: 마고 선녀는 숙향에게 "너는 본디 인간 세상의 귀한 집 딸이요, 천상계의 선녀가 인간으로 환생한 몸이라"고 말하고, 용녀 또한 "낭자는 천상의 선녀로서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니"라고 언급하며 숙향의 비범한 배경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숙향이 위기에 처했을 때(길을 잃었을 때, 강물에 빠졌을 때 등) 나타나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설명)

⑤: 이선은 마고 선녀와 용왕의 예언을 통해 숙향의 '천생배필'로 언급되며, 용궁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숙향과 만나 "첫눈에 서로가 하늘이 정한 인연임을 깨닫고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며 용왕은 이선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규범으로 인해 일시적 이별을 겪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16번문항]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지문에 표시된 시간 관련 표현(㉠~㉣)들이 각각 어떤 문맥적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① ㉠은 주인공의 삶에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주인공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분석: "숙향이 다섯 살 되던 해"는 숙향이 부모와 헤어져 마고 선녀를 만나게 되는, 그녀의 삶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특정 시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분석: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숙향이 열다섯 살"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며, 이후 마고 선녀로부터 자신의 운명과 배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인간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숙향의 삶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과 ㉡의 기능과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답 해설:

㉡: ㉠("그날 밤")은 숙향이 도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절망적인 상황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루는")은 그 상황이 해결된 직후가 아니라, 토지신의 도움으로 장 승상 댁에 머물게 된 이후 새로운 사건(여옥의 모함)이 발생하는 어느 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황이 해결된 직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하루는")은 여옥이 숙향을 모함하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며칠 후")은 장 승상이 집을 비운 며칠 뒤 여옥이 숙향을 강물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함을 보여주지만, ㉡에서 시작된 모함 사건이 ㉢에서 '짧은 시간 안에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 모함과는 별개로 ㉢에서 더 큰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 ㉡, ㉢, ㉣은 숙향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위기의 시간적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숙향이 열다섯 살")은 숙향이 마고 선녀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과 도움(구슬, 그림)을 받는 시점으로, 그 자체가 '불행한 사건을 예고'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과 그에 대한 대비를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모두' 불행한 사건을 예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열다섯 살, 예언 듣고 하산)과 ㉡(도적 만난 후 굶주리던 밤) 사이에는 숙향이 산을 내려와 도적을 만나고 곤경에 처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어 '여러 사건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옥의 모함으로 간힘)과 ㉢(며칠 후 강물에 던져짐) 사이는 '며칠 후'라는 시간 경과만 있을 뿐, 시간이 '비약적으로 흘러갔음'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번문항]

정답: ㉣

해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고전 소설의 서사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숙향전> 발췌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감상하고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보기>는 이원적 세계관, 다층적 시련, 초월적 존재의 개입/예언, 조력자, 상징물, 천상 운명과의 연결, 서사의 필연성 및 흥미 유발, 주제 의식 전달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숙향'이 '여옥'의 모함으로 헛간에 갇히고 이후 강물에 던져지는 사건들은, 주인공이 겪는 다층적 시련이 개인 간의 우발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천상계의 질서나 예견된 운명과는 무관하게 지상계의 논리에 따라 전개됨을 보여주는 군.

이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서는 "주인공의 고난은 천상에서의 운명이나 전생의 업보와 연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상에서의 모든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질서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고 선녀는 숙향에게 "네 운명에는 삼재팔난(三災八難)이 끼어 있으니,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야 행복을 얻으리라. 이는 하늘이 정한 바이니..."라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숙향이 여옥으로 인해 겪는 시련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기>의 관점과 작품 내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들은 '천상에서부터 예정된 운명'이자 '하늘이 정한' 삼재팔난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우연이나 지상계만의 논리가 아니라, 더 큰 천상계의 질서 및 예견된 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련들이 '천상계의 질서나 예견된 운명과는 무관하게' 전개된다는 진술은 <보기>의 설명 및 작품의 설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함정 요소: 시련의 직접적 원인은 여옥의 악행이지만, <보기>는 이러한 지상계 사건 이면의 초월적 질서나 운명론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음)

오답 해설:

㉠: 마고 선녀는 숙향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삼재팔난")과 궁극적인 행복("부귀영화")을 예언하고,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구슬 세 개와 신기한 그림 한 폭'을 제공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초월적 존재의 직접적 개입이나 예언'과 '천상에서의 운명'이 주인공의 시련 및 극복 과정과 연결됨을 보여주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 용녀가 숙향을 강물에서 구출하여 용궁으로 인도하고, 숙향이 "천상의 선녀로서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은, <보기>의 '천상계와 지상계를 넘나드는 이원적 세계관'과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등장'이라는 서사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 숙향이 도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마고 선녀가 준 구슬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위기 극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물이나 상징적 징표'가 서사의 필연성(예언된 시련 속에서의 생존)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감상입니다.

㉤: 숙향이 본래 천상의 선녀였다는 설정이나 용궁에서의 이선과의 만남 등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전기적(傳奇的)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천상에서부터 예정된 두 사람의 인연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입니다.